

제8절 민주·인권 친화적 학교 실현

1. 민주·인권 친화적 학교 여건 조성

가. 학생 인권 신장

개요

학생이 인간의 존엄함을 확인하고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통해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자아존중감을 신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광주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학생인권 조사·구제팀을 두어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에 관한 상담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체계의 구축에 노력하였고, 학교를 넘어 지역차원에서 학생인권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강화를 모색하였다.

추진실적

● 광주학생인권위원회 구성·운영

‘광주학생인권위원회’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24조에 근거해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위원 12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증진 계획 심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요구,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개선 권고 등 학생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권고하였다.



인권위원회 업무협약(2013.12.18.)

● 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39조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였다.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중 1인, 법률 전문가 1인, 인권활동가 1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조사·구제 업무를 심의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해 합리적인 학생인권 구제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 체제 구축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 사안을 효과적으로 상담·구제하기 위해 전문상담사와 조사관을 두어 조사구제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그 사례를 축적하여 인권교육 및 정책 개발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학교 현장에서의 이행과 안착을 위해 해설서, 가이드북, 업무추진 매뉴얼 등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였으며, 이행 상황의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컨설팅을 통한 착근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학생인권 의식 및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였다.

● 지역에서의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 체제 구축

학생인권의 문제를 학교에서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 광주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및 인권단체들과 인권정책연석회의,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민관협의회, 청소년노동인권캠페인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협의회, 세미나, 공동사업 등을 통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도시’와 관련한 교육행정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어린이 청소년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2018년 12월 28일 12월 28일 12월 28일 현황]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4회	13회	8회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100%(747건)	100%(607건)	100%(250건)
학생인권조례 이행 점검 및 실태조사	305교	312교 점검	312교 점검, 학생인권실태조사 1회	312교 점검
자료 개발 및 보급	2종	2종	1종 개발	1종 보급
유관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회의 6회	회의 10회, 세미나 10회	회의 11회, 세미나 4회
세계인권도시 포럼			1세션 운영	1세션 운영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제2차 공청회(2011.2.24.)

성과 및 전망

학생인권위원회 및 학생인권조례 전문위원회, 학생인권 조사·구제팀 운영으로 학생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의 체계화와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학생인권조례 업무추진 매뉴얼, 학생인권조례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 등의 개발·보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안착과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 및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확인하고,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통해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과 노력을

할 계획이다.

나. 교권 보호

개 요

교육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행복한 교직생활을 원하는 현장 교사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 교권에 대한 이해신장, 교직에 대한 특수성으로 노출된 다양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권전담변호사의 법률지원 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교원들이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다양한 교권증진 연수 및 자료보급으로 교권침해 예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였다.

추진 실적

[○○○○○○ ○○ ○○ 현황]

(단위 : 회, 교, 건)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2회	2회	4회
찾아가는 교권보호지원연수단 운영		전체 305교	희망 168교	희망학교
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 운영		177건	263건	280건

●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내지 제18조에 근거하여 교권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위원 9명을 위촉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권 증진 계획 심의 등 교권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권고하여 교권조례의 성공적 착근을 통한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롭고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운영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교직스트레스와 교권침해 위기고

원을 위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교권침해 및 분쟁에 따른 법률지원을 위해 전담 변호사를 두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개소(2012.11.12.)

● 교권 증진 체제 구축

교원의 교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통한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력 신장을 위해 찾아 가는 교권보호지원연수단을 구성하여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사례별 연수를 실시하고, 교권보호 가이드북, 교권증진 리플릿 제작 보급으로 교육주체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교육의 신뢰도 향상에 주력하였다.

● 교권상담 힐링센터 구축 및 교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교직 스트레스, 교권침해, 우울증 등 피로 누적에 따른 심리·치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힐링센터를 마련하였다. 힐링센터를 통해 교권침해 상담 및 예방 교육, 다양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의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주체간 상호 신뢰를 통한 학교 교육력 신장에 기여하였다.

성과 및 전망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권침해 예방교육과 사안발생 시 전문적인 상담 및 법률지원으로 초기대응을 통한 원만한 사안해결 및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장되었다. 추후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직 스트레스로부터 적극적인 대처 요령 안내와 학생 이해에 대한 정보공유, 힐링을 통한 심신 회복과 관계회복을 위한 교권상담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교직생활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 민주·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개 요

민주·인권 친화적인 학교란 학교 구성원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에서 인권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양식과 제도가 학교 구성원의 일상생활 안에 뿌리 내리는 학교를 말한다.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참여와 협력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을 전개하고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관련 단위학교 실천 모델을 발굴·일반화하였다.

추진실적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육성 및 지원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배움터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참여와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가 꽃 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율적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민주·인권·평화 동아리를 육성·지원하였다. 교원과 학생 및 민주·인권·평화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지역단체 인사로 구성된 동아리를 100팀 이내로 선정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였다. 동아리 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계획-실천-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하여 일선 학교에서 일반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의 인권 관련 각종

공모전 및 교육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권 문제, 인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민주·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및 운영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체벌, 두발, 용의, 복장 등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학생생활규칙을 제·개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썼다. 아울러 제·개정 과정에서도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확인·인지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칙은 학교 누리집에 탑재하여 공개하는 등 정기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다.

● 학교인권교육 책임교사제 운영

학교 단위 자율적 인권교육 및 실천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인권교육 책임교사를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학기 초 학교인권교육 책임교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책임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권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강화하였다. 학교인권교육 책임교사는 단위 학교 학생인권·교권 관련 교육 기획·운영, 교육청에서 배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학부모 교육 및 연수 자료 제작·배부,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한 지원 및 모니터링 활동을 담당하였다.

● 학교민주인권친화도 조사

2011년 전국 최초로 '학교 민주인권친화지수'를 개발하여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장 및 민주적 의사소통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였다. 이들 지표 중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보장받아야 할 항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7개 영역 31개 지표를 추출하여 '학교민주인권친화도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체 학교에 배부하여 정량적·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교 평가에도 반영하였다. 학교민주인권친화도 측정을 통해 학교생활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파악·분석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하였다.

● 학교인권증진 공모전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개선 아이디어와 각종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 사례를 수집하여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인권증진 공모

전을 실시하였다. 2011년 광주학생 인권 UCC대회, 2012~2013년 인권영상, 인권수업, 인권아이디어, 2014년 인권표어(슬로건), 인권포스터, 인권수업 분야에서 공모하였다.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육성 및 지원 현황]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육성 및 지원		100팀	100팀	60팀
학교인권교육 책임교사제 운영		306교	308교	312교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305교	306교	308교	312교
학교 민주 인권 친화도 조사	개발	1회	1회	1회

성과 및 전망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육성·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민주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인권도시의 초석을 다지는데 앞장섰다. 민주적 절차 및 학생 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및 합리적 운영, 학교 민주인권친화도 조사를 통해 민주·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민주·인권·평화동아리 활성화 및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학생 인권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라. 학생자치 활성화

개 요

‘자치, 자주, 자립’은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이다. 성찰적 지혜를 습득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내용임이 분명하다.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규범의식과 관용, 연대감 등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학교 현장이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진 실적

● 학교급별 학생의회 구성 운영

학생의회 구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 학생대표(학생회장)와 학생회장 정원의 20% 이내의 참여 희망자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의 학생의회를 구성하였다. 연 4회 이상의 정기의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의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등 학생들의 자율활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초·중학생 리더십캠프와 중·고등학생 학생자치캠프를 매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신장시켜 왔다.

● 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

전 학교에서 학칙 등의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과 학생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학교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며, 학생대표와 학교장과의 대화 시간을 정례화 하여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었다.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각 학교에서 학생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회실과 동아리실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해 학생의 학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학생들이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를 활성화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2회의 리더십 캠프를 개최하고 중·고등학교는 매년 1회 학생자치캠프를 개최하여 학생회와 동아리 회원들 사이의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여 각 학교 학생회와 동아

리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참여 홈페이지(studentact.gen.go.kr)를 구축하고 학생자치활동 관련 자료집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매년 광주 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한 해 동안 학생들이 이룬 자치활동의 성과를 집약하고 학생자치활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지역과 세계의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토록 하기 위해 광주 청소년 사회참여대회와 광주 청소년 모의 유엔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대폭 늘렸다.

[○○○○○○○○ ○○○○ ○○ 현황]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 생 의 회 운 영	3회	21회	19회	5회
학 생 회 실 설 치 지 원	19교	30교	15교	
리더십 강화 캠프 개최 횟수	1회	7회	6회	
자치활동활성화 자료 개발 및 보급	3종	1종	3종	
학 생 자 치 활 성 화 지 원	1단체	3단체	4단체	4단체

성과 및 전망

학칙 등 각종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학생이 참여토록 하고 학교장과의 대화를 정례화함으로써 민주적 학교운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초·중·고 학생의회의 구성·운영은 학생자치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 가게 하는 민주 시민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매년 리더십캠프와 학생자치 캠프의 지속 운영으로 학생자치 능력을 신장시키고, 청소년 스스로 광주청소년 독립 페스티벌을 기획·운영하여 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주청소년사회참여대회를 통해 학교의 창의체험활동을 장려하고 광주청소년 모의 유엔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청소년 사회참여대회(2013.11.23.)

2. 민주·인권교육 강화

가. 민주시민교육 강화

개요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지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였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지역의 민주화운동사 교육 강화, 학력이 아닌 활력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금부초 5·18 계기수업(2011.5.18.)

추진 실적

● 5·18 민주화운동 교육 내실화 및 전국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은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전국적인 5·18 교육 활성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다.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 5·18민주화운동 (인정)교과서 발간 및 배포, 5·18학습사이트 운영·지원, 초·중등 웹자료 개발, 문학과서 발간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토록 했다. 또한 5·18 교사연수, 수업사례공모 및 발표대회와 같은 교사 교육 프로그램과 5·18 청소년역사캠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지원, 5·18 청소년문화제 RED FESTA 등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등 대상별·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다. 5·18 교육 내실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매년 5월 이후 실시된 '5·18 민주화운동 교육 실시 현황 조사'를 통해 평가되어 차기년도 관련 사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5·18 역사 편찬과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역사 왜곡 교과서 발간 등과 같은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관련 안건 제출, 전 국민 서명운동 추진, 교과서 내용 분석, 5·18 바로 알고 알리기를 위한 청소년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5·18 5·18 5·18 5·18 5·18 현황]

(단위 : %, 중, 회)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18 민주시민교육 실시율 (실시학교 수/전체학교 수)	89	98	100	100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1	2	3	2
5·18 기념행사 운영·지원	3	3	3	4

● 다양한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통합되고 있는 반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 또한 심화되는 미래사회에서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공동체와 함께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인문학 교육은 미래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일 뿐만 아니라, 왕따와 학교폭력 등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이 사회현상과 관련해 자신의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 인문학 교원직무연수를 개설해 교사들이 통합형, 치유형 인문학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인문학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해 인문학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 인문학교실 ‘상생의 숲’을 매학기 7~8주간 운영함으로써 인문학교육을 위한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전파하였다.

[5·18 5·18 5·18 5·18 5·18 현황]

(단위 : 회, 교, 명)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문학 교원직무연수 실시 횟수		1	1	1
인문학 교육 선도학교 수		6	9	
청소년인문학교실 참가자 수	78	585	6,842	

성과 및 전망

5·18민주시민교육 실시율이 89%에서 100%로 되는 과정은 단순히 양적인 확대를 넘어 질적인 성장을 기하는 과정이었다. 실제로 5·18 역사 이해와 관련된 계기교육 프로그램이 민주·인권·평화, 저항과 공동체 등 다양한 정신계승 사업,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장차 5·18 교육 전국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인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인문학 교원직무연수를 매년 운영하여 교사들이 부담감 없이 인문학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하였으며, 인문학교육 선도학교를 2012년 6개 학교, 2013년 9개 학교로 확대 지원하였다. 2011년 2학기부터 ‘청소년인문학교실 상생의 숲’을 매 학기 운영하여, 문학·역사·철학·정치·경제·사회·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인문학교육을 7~8주간 주 1회 3시간씩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비판적 사고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 인문학교실 상생의 숲’은 2011년 78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이후, 매학기 교육 희망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광주 전역의 학생들이 특정 공간에서 수업을 받기에는 접근성의 한계가 있어 2014년 이후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교실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문학교육 선도학교로 시작한 인문학교육 사업이 각 학교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청소년 인문학교실 개강(2013.5.22.)

나. 인권교육 강화

개요

학교에서의 교육과 생활이 민주·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식과 실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와 인권교육 저변확대를 통해 인권교육을 강화하였다.

추진실적

● 민주인권교육센터 운영

「광주학생 인권조례」 제38조에 근거하여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평화교육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립(2011.6.) 운영하였다.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는 민주·인권·평화 관련 교육 및 정책을 개발·수행하고 학생인권침해 관련 상담·조사 및 지원, 학생의회 지원,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학교 인권교육 강화

「광주학생 인권조례」 제34조 내지 제37조에 근거하여 학생·교사는 학기당 2시간 이상, 학부모는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인권교육 실시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인권강사단 파견 및 장애당사자가 찾아가는 장애 인권교육 지원, 청소년 인권연극 관람 지원 등을 통해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를 기하였다. 교원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직무연수를 매년 개최하고 학교 현장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 수업 및 창의적체험활동 진행 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주·인권·평화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추진하여 민주·인권·평화교육 실천 의지를 제고하였고,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하여 일반화에 노력하였다.

[○○ ○○○○ ○○ ○○ 현황]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 권 교 육 실 적	305교	306교	308교	312교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홍보	6종	8종	6종	
인 권 교 육 활 동 지 원	2단체	3단체	3단체	4단체



인권교육 연구 협약체결(2011.5.18.)

● 인권교육 저변 확대 및 지원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와 함께 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였고, 토론회 개최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장애당사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장애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극 및 영화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인권교육, 모의인권이사회 등 학생참여를 활용한 인권교육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매년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민주인권평화동아리 활동 전시와 함께 인권교육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교육적 전략을 도출하고자 인권교육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였고, 노동인권캠페인과 노동인권캠프를 운영하였다.

성과 및 전망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 및 콘텐츠 보급 등으로 학교 인권교육이 내실화 되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공동 운영, 인권교육토론회, 노동인권캠페인 등 인권교육을 위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향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보다 다양한 인권교육의 방식과 내용이 시도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선포(2011.11.17.)